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. 11(금)

### 유럽

- **英 연구진, 개인의 사회적 고립이 과격·급진화 원인으로 분석**
  - 1.6 英 유니버시티 칼리지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과격·급진화의 주요 원인이며, 사회적 차별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사회의 테두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
    - \* 지하드에 동조하는 무슬림 청년 대상, 사회적 고립에 따른 뇌신경 변화 연구
- **유럽, 테러 증가에 따른 불안감으로 민간 총기보유 급증**
  - 1.7 美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최근 유럽에서 시민들의 총기 보유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, 테러 증가에 따른 호신용 총기 소지가 오히려 일반범죄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    - \* 유럽내 합법적으로 등록된 총기는 3,450만대, 불법 총기류는 4,450만대 추정
- **유럽연합, 테러모의 이란인 등에 대해 자산동결 등 제재**
  - 1.8 유럽연합(EU)은 유럽으로 망명한 이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테러를 모의한 이란인 2명과 정보기관에 대해 EU 지역내 자산동결과 EU 지역내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
    - \* '18.10월 덴마크 경찰은 이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암살음모 사건 배후에 이란 정보기관이 개입했다고 강력 비난
- **英 히스로 공항, 불상의 드론 출현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**
  - 1.8 유럽 최대 공항중 하나인 英 히스로 공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해 약 한 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BBC가 보도
    - \* 英 정부는 12.19 개트윅공항 드론사태를 계기로 공항 주변 드론통제 추진 (드론 비행금지구역 1km→5km 확대, 드론 등록 및 자격시험제 도입 등)

## 미 주

- 美, ISIS 격퇴 및 쿠르드 안전확보 조건 시리아에서 철군 표명
  - 1.6 美 ‘존 볼턴’ 백악관 보좌관은 예루살렘에서 “시리아 철군 조건은 시리아내 ISIS 잔당을 격퇴하고 미군과 함께 ISIS와 싸워 온 쿠르드 반군을 보호하는 것이며, 터키는 미국의 협력자인 쿠르드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”고 언급

## 아 · 태평양

- 日, 2020 도쿄올림픽 대비 열차승객 몸수색 추진 검토
  - 1.8 日 국토교통성은 도쿄 올림픽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열차역 1개소에 열차 탑승객이 휴대한 흉기·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 설치, 탐지기의 성능과 승객의 불편여부 등을 검토 후 승객에 대한 몸수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
    - \* 신칸센 열차내 ‘묻지마 살인’ 및 ‘분신자살’ 사건을 계기로 시범사업 검토
- 호주, 외국공관 대상 백색가루 우편물 발송 용의자 체포
  - 1.9 駐호주 美·英·日 대사관 등 외국공관에 백색가루가 든 우편물이 배달된 것과 관련, 1.10 연방경찰은 빅토리아주 남동부 셰퍼턴에서 용의자(남, 48세)를 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발표
    - \* 경찰은 대상 물질을 회수하여 정밀 조사 中

## 중 동

- 시리아민주군(SDF), 미국인 포함 ISIS 외국인 조직원 5명 체포
  - 1.6 시리아민주군은 시리아 북부 탈환 작전중에 ISIS 외국인 조직원 5명(미국 2, 파키스탄 2, 아일랜드 1)을 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발표

파키스탄 연쇄 폭탄테러

- '13.1.10 파키스탄에서는 5월 총선을 앞두고 지속적인 테러로 정국이 불안하던 중, 대규모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, 115명 사망·230여명 부상
  -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주도 퀘타의 한 당구장에서 2차례 폭탄테러로 81명 사망, 120여명 부상
  - 퀘타 상업지구에서 치안유지군 대상 폭탄테러로 12명 사망, 40여명 부상
  - 북서부 스와트주 밍고라에서 이슬람 종교지도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군중속에서 폭탄이 터져 22명 사망, 70여명 부상
- 테러단체인 '라쉬카르 에 장비'는 당구장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며, 1차로 건물내부에서 자살폭탄테러를 하고, 2차로 폭탄을 실은 차량을 무선으로 조종하여 폭파시켰다고 주장
  - \* 1차 폭발 후 10분 뒤 현장에 경찰관, 구조대,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도착한 가운데 2차폭발이 발생하여 경찰관 9명, 기자 1명을 포함 사상자 다수 발생

< 라쉬카르 에 장비(LeJ: Lashikar e Jhangvi) >

- **(결성)** '96년 파키스탄 내 시아파 축출 및 샤리아로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건설을 목표로 결성
 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03.2), 미국('03.1), 캐나다('03.6), 파키스탄('01.8)
- **(핵심인물)** 모하마드 아즈말(지도자, '04.6 체포)
  - 무프티 아부자르 알부르미('10년 이후 지도자로 활동)
- **(활동지역)** 파키스탄 및 인도
- **(활동수법)** 시아파 및 기독교 주민 암살, 납치, 폭탄테러 등
- **(주요테러)** '10.9 편잡주 라호르시 시아파 행사장 대상 연쇄 자폭테러로 277명 사상
  - '15.10 신드주 자코바다드시 시아파 아슈라 행사장에 자폭테러로 64명 사상
  - '16.10 퀘타에서 ISIS와 합동으로 경찰기숙사를 공격, 경찰훈련생 231명 사상

